

세계ODA 사업동향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본 내용은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하 코이카)과의 협력 아래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개발사업 관련 주요 ODA사업에 대한 소개

코이카 교통 및 수자원 분야 ODA사업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동력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산업 및 에너지와 연계된 도시인프라 분야의 ODA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교통인프라 개선사업과 홍수 방지 등 수자원 관리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많이 요청 받고 있다.

가나 아크라시, KOICA의 지원으로 도시교통시스템 개선 본격화

가나 아크라시 도시교통 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13~2016, 150만 달러)

가나의 정치적인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결과로 수도 아크라의 자동차 대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유사한 소득 수준의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하여 자동차 대수 보유 비율은 2~3배로 높으며, 특히 아크라의 교통 혼잡은 극심한 상태이다. 최근 아크라 시내 인구가 외곽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통행의 상당수가 승용차에 의존하게 되면서 교통 혼잡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크라시 도로의 배치(Layout)는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으나 도로의 포장률이 62%로 저조하고 교통 혼잡이 심각하여 평균 통행 속도가 18km/h(서울 26.4km/h)로 매우 낮다. 2010년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아크라시 시민들은

교통혼잡, 노점상 도로점거, 불법주차, 포장상태, 좁은 도로 폭, 우기의 도로상태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가나 정부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교통행정체계 개선, 도로 기하구조 및 신호등체계 개선, BRT(Bus Rapid Transit) 도입 등 단기 개선 대책을 중심으로 도시교통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단기 개선 대책만으로는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한 가나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는 2011년 3월 KOICA에게 중장기 도시교통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과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 도입을 위한 타당성분석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을 토대로 KOICA는 2013년부터 ‘아크라시 도시교통 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13~2016, 150만 달러)’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업의 기본방향은 현지사정에 적합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KOICA는 2014년 12월부터 이러한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크라시의 교통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종합교통계획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단기 실행사업을 발굴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본 사업의 기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연구원 컨소시엄과 함께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과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2014년 12월 사업착수 이후에는 20개월에 걸쳐 교통, 도로, 구조의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최적화된 아크라시 도시 교통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사업의 현지 주관기관인 가나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와 아크라 시의회(Accra Metropolitan Assembly)를 대상으로 초청연수와 현지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지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나의 교통 전문가들을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마스터플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원조효과성의 기본원칙인 원조조화를 위하여 가나 내 교통사업 중복 가능성을 줄이고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코자 하는 목적으로 세계은행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버스운행관리시스템(Bus Management System, BMS)과 버스운행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BIS)을 세계은행의 BRT사업과 연계하여 단기 실행계획(Action Plan)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동 사업의 1차 사업목표는 아크라시가 활용 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다. 가나 현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결과물을 내는 것이 사업 장기 목표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인 목표는 교통 체증 감소 등 실질적인 교통지표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전제조건들을 넘어야 하기에 KOICA,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컨소시엄(기술자문) 및 향후 선발될 사업수행기관은 우리나라의 원숙한 경험을 바탕으로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교통시스템의 구상을 통해 동 사업의 결과물인 마

스터플랜이 아크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작성자 : 서아프리카팀 이규홍 직원

콜롬보, 지능형 교통체계를 활용한 효과적인 교통 혼잡 해결방안 모색

스리랑카 콜롬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기술지원사업 (2013-2015/250만 달러)

스리랑카는 2009년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식된 이후, 대내외 정세가 안정됨에 따라 연간 7%대의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10개년 국가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 중소득국 진입을 국가적 목표로 천명하며 인도양의 허브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교통인프라로 인하여 매년 교통혼잡 비용, 물류비 등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특히, 전체 인구의 약 30% 이상이 거주하고, 정치·경제 등 주요 기능이 집중되어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 콜롬보 광역시는 급격한 차량증가 및 지정체 현상으로 엄청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은 기존의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 교통 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 및 활용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도로 인프라 확장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내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스리랑카 정부는 콜롬보 광역시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 발전된 IT 기술과 성공적인 ITS 구축 경험을 전수받기를 희망하였고, KOICA는 '스리랑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기술지원사업(2013-2015/250만 달러)'을 통해 차량, 신호, 도로 등의 교통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통관리 체계 및 첨단신호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개발건설링사업(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DEEP)으로 전문가 파견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1) 콜롬보 광역시의 첨단교통 시스

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 관계자들의 인적 역량을 강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로젝트의 주요 산출물인 기본 설계, 실시 설계서를 기반으로 실제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콜롬보 시내의 도로용량의 증대, 중장기적으로는 교통 흐름 개선을 통한 교통체증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KOICA는 스리랑카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IT 업체들의 현지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OICA는 스리랑카의 개발 수요 및 경제 성장 수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원조 제공을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협력 파트너들이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 사업에는 국내 SW 중소기업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이 QA(Quality Assurance) 기관으로 참여하여 스리랑카 현지에서 한국의 전문성을 공유해오고 있다.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콜롬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동시에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작성자 : 서남아시아팀 유미리 직원

KOICA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모로코 홍수 및 가뭄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모로코 세부강유역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기간: 사업비)

38,380km²의 면적을 가지는 세부(Sebou)강은 도시와 농촌 지역의 약 620만 명의 인구를 아우르는 모로코의 가장 중요한 유역 중 하나이다. 그만큼 국가경제에 있어서도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에 걸쳐 큰 영향력을 끼친다. 세부강 유역은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일뿐더러 관개된 토지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으로도 손에 꼽힌다. 세부강 유역에 자리 잡은 가브(Gharb)평야 지역의 면적은 616,000ha에 이르고, 관개가능한 면적은 250,000ha이며 이중 114,000ha는 중앙집중형 관개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부강 유역

은 또한 선진화된 산업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설탕정제업, 제지업, 착유업, 가죽가공업, 시멘트업, 섬유업, 석유정제업 등이 세부강 유역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반면, 세부강은 연강유량이 400mm이나 지역별 편차가 (50~2,000mm)가 큰 편이다. 더불어, 기상이변과 하수도 시설의 통수능력 부족으로 인해 세부강 유역에는 물부족 및 홍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모로코 에너지광물수자원부는 세부강 유역 가브평야의 홍수방어 마스터플랜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더불어, 동부처는 아래의 ‘국가수자원전략’ 6대 중점분야에 기반하여 세부강 유역의 수자원 관리를 운영 및 계획하고 있다.

모로코 국가수자원전략 6대 중점분야

1. 물수요 및 물자원의 경제적 가치 관리
2. 물공급 관리 및 개발
3. 자연구역 및 취약지역의 수자원 보호
4. 기후변화 적응 관련 위험 및 취약 요인 감소
5. 규제 및 제도적 개혁
6. 수자원 관련 정보체계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

위와 같은 정책적 기초를 바탕으로 국가 수자원 수급 및 이용에 대한 평가와 계획을 담당하는 모로코 에너지수자원부는 2012년에 ‘세부강 유역 가브평야에 대한 홍수방지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모로코 에너지수자원부는 마스터플랜의 산출물로 세부강 유역 전반의 강우-유출 모형 구축 및 설계유출량 산정, 물이동 계획을 고려한 최적의 홍수분담계획 마련, 세부강유역의 종합적 정비를 위한 세부 관리계획 제시, 연차별 추진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의 세부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KOICA는 2014년 1분기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고, 2014년도 4분기에 조사결과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KOICA와 모로코 에너지수자원부는 2015년 1분기에 ‘선택과 집중’ 논리에 따라 마스터플랜 중점분야를 최종 결정한 뒤, 해당연도 2분기에 동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작성자 : 서아프리카팀 임한나 직원